

'이제는 뭉쳐야 산다'



황용주
(주)해드림 대표이사

우리나라 양돈산업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같이 짧은 시간에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 왔으며, 그 결과 과거 경작위주의 농업에서 양돈산업이 농업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는 결과를 가져 왔다.

이러한 발전의 배경에는 무엇보다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피나는 노력을 해 왔던 업계 종사자들의 힘이 가장 크게 작용했으리라 사료된다.

그러나 20C 비약적인 발전을 해 오던 양돈산업은 21C 들어 구제역발생으로 인한 대일 돈육수출 중단과 각종 질병의 창궐, FTA와 같은 통상조건의 변화에 따른 개방화 등으로 인하여 정체상태에 머물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이러다가는 개방화의 파고에 휩쓸려 존립이 위태로운 것 아닌가라는 위기감마저 감돌고 있다.

필자도 양돈산업에 종사하는 한사람으로

이러한 위기감이 기우이기를 바라지만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지에 대한 깊은 성찰과 함께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책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필자는 양돈인들이 주주로 구성된 회사인 사료회사와 육가공회사를 경영하고 있으면서 개인적으로 양돈업을 하고 있다. 경영을 하다 보면 많은 부분에서 주주와 회사간(업종간)에 이해 관계가 상충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러한 이해상충의 문제는 우리 산업내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완전 수직계열화를 통해서 극복할 수도 있지만 필자가 알기로는 아직 우리나라에 이러한 업종간 이해 관계를 효과적으로 조정하여 통합적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업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필자는 위에서 이야기한 통합적인 시너

지 효과를 내는 것이 바로 21C 우리나라 양돈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한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한다.

필자가 제기하는 통합이란 소비자가 우리산업에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아서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러한 요구사항을 이루기 위하여 양돈산업에 관련된 각 업종들이 무엇을 양보하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현재 각 업종별로 결성되어 자기 업종들의 권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협회들을 총괄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기구의 결성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마치고 보면 양돈산업내에 존재하는 양돈업, 동물약품, 축산기자재, 각종 컨설팅업, 사료, 도축장, 육가공공장, 유통업체 등은 한배를 탄 것임에 틀림이 없다.

왜냐하면 이들은 소비자들이 국내산 돈육을 소비해주기 때문에 업을 영위할 수 있으므로 한배를 탄 것이라는 것이다. 국내산 소비가 부진하던지, 아예 소비가 안 된다던지 할 경우 전체가 존재가치를 잃게 된다.

물론 일부 업종들은 해외시장진출이나 수입육 유통 등을 통하여 활로를 모색할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국내에 사업장을 둔 업체들에 국한한 이야기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 양돈산업의 현실을 보면 이해가 상충되는 각 업종들의 조정과 통합기능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름대로 정부에서 이러한 기능

을 하고는 있지만 업종별로 자기 업종만 유리한 방향으로 의견을 피력할 수 밖에 없고, 이러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된다보면 해당 업종은 유리하지만 다른 업종은 불리하게 되어 결국은 산업 전체적으로는 경쟁력을 잃어버리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흔히 있어왔다.

지금은 국가간 경쟁도 치열하지만 국내에서도 산업간, 제품간 경쟁도 치열하다. 우리는 흔히 작금의 시대를 융합의 시대라고 이야기 한다. 각자가 열심히 할 부분도 많지만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통일된 행동을 보여야 할 부분도 많다. 그래야 글로벌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다고 본다. 세상은 빨리 변하고 있으며, 따라서 빨리 변화해야 살 수 있다.

일례로 우리에게 필수품이 되어 버린 핸드폰만 보아도 과거에는 무선으로 전화를 할 수 있는 기능에서 지금은 아주 다양한 기능을 가진 제품이 되어 있지 않은가! 그것도 아주 짧은 시간에..... 그러나 우리 양돈산업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소비자 요구에 대해서는 상당히 둔감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소비자들 또는 시장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캐치프레이즈(목표) 아래 각 업종들이 힘을 합하여 목표달성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우리 모두를 생존케 할 것으로 생각된다.

프랑스의 돈육협회와 같은 기구가 좋은 롤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정부주도가 아닌 민간부분의 자율적인 조정과 통합으

로 정부가 정책적인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것들을 요청하고 정부는 이러한 요청을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러한 기구의 형성에 우리 사료업체가 앞장서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양돈산업의 여러 업종 중에서 사료업체가 가장 기업화, 조직화 되어 있으므로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충분한 동력이 있다고 본다.

최근 우리나라 생축거래가격의 하락과 그 유지기간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돼지의 경우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생산

기반이 흔들릴 정도이다. 이런 상황도 필자가 제기하는 기구가 있다면 훨씬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관련업종 모두가 동참하여 소비자들의 수요량을 늘릴 수 있는 프로모션을 전개한다면 가능하다고 본다. 그리고 뭉쳐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오는 12월 제 18대 대선이 있다. 정치적으로도 국내산 돈육생산 및 유통에 관련된 업종들이 하나로 뭉쳐진 기구가 있다면 훨씬 더 역량이 있지 않을까? ☞